

콘텐츠 산업에서 잘못된 식품정보와 그 문제점 Risk of Information Obesity by Incorrect Food Contents

양혜정, 정경란*, 장대자, 권대영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차 례

1. 서론
2. 진리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3. 고추독살(초)설의 분석
4.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오류
5. 잘못된 정보가 나타나는 현상
6.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생긴 문제점
7. 결론

1. 서론

인류가 잘살게 되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살기 위하여 먹을 때와는 다르게 조심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가려 낼 줄 알아야 비만(obesity, biological obesity)을 벗어날 수가 있다. 원래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조절하고 병을 방어해주는 사이토카인(cytokines)이 있어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데, 일단 비만에 걸리면 비만세포에서 사이토카인과 다른 리포카인(lipokines) 등이 생겨서 몸에 좋은 사이토카인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직접 암을 유발하는 등 우리 몸을 해치기도 한다[1].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연유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며, 정보로 먹고 사는 시대이다. 얼마나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냐에 따라 그 기업이나 나라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정보는 진실과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 만일 진실된 정보가 아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는 나라도 경쟁체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고, 진실과 진리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하여 급속한 정보화시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기술에 대비하여 이에 대응할 만큼 살아 있고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오히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진실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어 다른 진실된 정보(cytokine)의 흐름

을 막거나 발전에 해가 되는 정보(lipokine)가 유통된다. 이러한 현상을 사람의 비만(biological obesity)에 견주어서 정보비만(information obesity)라 한다.

식품산업에서도 이러한 정보비만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과학적인 분야보다도 식품의 역사를 다루는 인문학적 분야에서 이러한 정보비만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식품분야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식품의 역사를 모두 부정해야 하는 고추의 임진왜란 때의 ‘일본전래설’이 그렇다. 또한 식품어원 분야에서 정보 비만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먼저 식품의 어원분야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고추의 어원이 고초(苦椒)에서 심지어는 일본어 고쇼(こしょう)에서 왔다고 주장하거나[2], 비빔밥의 어원을 골동반(骨董飯)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3], 김치의 어원을 사람이름 김치(金致)나 침채(沈菜)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고[4], 배추나 무가 백채(百採)와 무(蕪)에서 왔다고 주장하는가 하는 이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양념은 약념(藥念)에서, 소금은 우금(牛金)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5]. 정말로 비과학적이며 옳지 않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마치 진실인양 돌아다니고 있다. 더군다나 어떤 이는 자기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럴 듯하게 꾸며대기도 하여 이러한 비만정보가 돌아다님으로써 진실된 정보가 움직일 수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과 발전의 저해를 낳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의 왜곡현상은 우리나라 음식이나 식재료를 영어나 한자로 잘못 번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인 양 돌아다니고 중국에는 이들의 영어나 한자어의 의미가 우리 고유의 음식이 갖고 있는 뜻인 양 잘못 전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우리말 고추, 김치, 배추가 한자를 차용하는 초(椒), 저(菹), 송(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의 음과 뜻을 살려 한자로 苦椒, 沈菜, 百菜로 글자를 만들어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이 마치 이러한 한자에서부터 왔다고 거꾸로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전주 모주의 경우 어미모(母)가 아닌 없을 무인 무주(母酒)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주가 모주(母酒)인줄 알고 영어로 번역할 때 Mom's Wine으로 번역하거나 Mother's Wine으로 번역하여 오히려 영어의 뜻을 보고 '엄마의 젖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 만들었다.' 하는 정말 웃기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

물론 식품산업의 발전에 역사나 스토리가 콘텐츠로서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가 진실일 경우만이 정말 살아 있는 정보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식품 콘텐츠에서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와 잘못된 정보의 하나인 고추의 독살설을 그 예로 들어 그 주장이 왜 진실이 아닌지에 대한 논리적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거짓 정보가 어떻게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남한산성」의 가사를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인 식품의 어원에 대한 정보가 왜 진실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속보로 발표하고자 한다.

2. 진리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진리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어느 가정이 진리이면 그 진리의 대우는 반드시 진리이어야 한다. 즉 'A가 B이다'가 진리이면 이의 대우인 'B가 아니면 반드시 A가 아니다'도 반드시 진리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진리는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쉽게 설명이 되지 않거나 다른 많은 가설을 갖다 붙여야만 이해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유명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가 백 년전에 코페르니쿠스(1573-1543)가 주장한 지동설(地動說)을 도입하지 않고는 기존 천체·지구의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즈음에 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All truths are easy to understand once they are discovered; the point is to discover them" ('모든 진리는 일단 발견되어 알려지면 쉽게 이해되어진다. 다만 어떻게 진리를 찾느냐가 문제이다').

갈릴레이는 기존의 천동설(天動說)을 갖고는 달의 변화, 바다의 조수현상, 육지와 바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도입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음을 깨닫고 진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정의한 것이다.

갈릴레이의 이러한 정의는 갈릴레이가 죽은 해에 태어났던 아이작 뉴턴(1642-1727)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어, 이 진리의 정의에 근거하여 천체·지구상에 나타나는 천체물리적인 현상에 대하여 쉽게 설명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많은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 등이 있고, 후대에는 뉴턴 등이 발견한 여러 가지 법칙(진리)들이 종합되어 모든 반응의 기초가 되는 열역학법칙이 정리되는 기본토대가 된다. 열역학 법칙 중 '모든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반응' 즉 무질서도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뉴턴이나 그레고르 멘델(1822-1884)도 이 갈릴레이 진리에 대한 정의에 크게 영향을 받아 나중에 유명한 물리학자나 생물학자(유전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6].

다시 말하면 어떠한 주장이나 진리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은 것은 진실이 될 수가 없으며 진리는 결코 아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절대 복잡하지 않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설이나 잡설(케번)을 동원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은 논리나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다. 식품산업에서 여러 가지 설을 동원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은 주장이 고추의 임진왜란때 일본에서 들어 왔다는 '일본전래설'이다.

우리 민족은 김치, 고추장을 오래전부터 먹어 왔던 터라 우리 고추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러한 단순한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 식품역사를 복잡하고 이상하게 만든 것이 고추의 임진왜란 일본전래설이다[7]. 고추의 임진왜란설을 주장한 이성우나 그 제자들이 쉽게

설명이 안되고 많은 논리의 허점이 들어나니까 그 때 그 때마다 방어 논리로 여러 가지 설들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설들의 특징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설들을 모아보면 거의 20가지도 넘는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 잡설에 대하여 아무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고추의 일본전래설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마치 로마 교황청이 천동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갈릴레이를 탄압하는 종교적 행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 그들은 심지어 『소문사설(謏聞事說)』에 『순창고추장제조법』이 기술되어 있자, 임진왜란때 들어온 변초로는 50-60년 사이에 고추장을 만들 수 없으므로 필자를 이시필(李時弼, 1657-1724)이 아닌 후대의 인물인 이표(李杓, 1680-?)로 왜곡하기도 한다[8].

고추의 일본전래설을 지탱하기 만들어낸 잡설들을 잠깐 예를 들어 보면, 고추독초설, 고추행주대첩설, 우리민족우수설, 고추역수출론, 남쪽재배설, 김치 고추장 개발설, 흑고추장설, 임무교대설, 일본왜곡설, 『소문사설』 끼워넣기설(고추장부분은 나중에 끼워넣었다), 『소문사설』의 저자 왜곡, 백김치설, 김치역사백년설, 한자 菹와 椒 오류설, 沈菜어원설, 苦椒어원설, 고추돌연변이설, 고문헌 오류설, 후추생산설, 산초고추장설, 산초재배설, 우리말의 한자 어원설, 나중에는 설명이 안되니까 하늘에서 김치가 떨어졌다는 빅뱅(big bang)설 등 그러한 온갖 설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잡설을 동원하지 않으면 고추 일본전래설은 성립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잡다한 설이 동원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은 것은 진리일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고추의 일본전래설을 동원하기 위하여 만든 설도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논리적인 전개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 이유는 고추의 일본전래설이 허구이기 때문에 이를 성립하기 위하여 동원된 설도 당연히 허구가 될 수밖에 없다[9].

여기서 이들 잡설의 허구성을 일일이 다 따져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잡설들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고추의 일본전래설을 성립시키려고 첫 번째 동원한 설이 고추독살(초)설이다. 고추독살설은 과연 진리인가?

3. 고추독살(초)설의 분석

3.1 고추독살(초)설의 배경

일본에서 임진왜란 때 고추를 갖고 들어 왔다면 왜 일본군이 고추를 갖고 들어 왔을까? 에 대한 강한 의문이 생긴다. 일본에는 고추로 만든 음식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많은데 굳이 일본이 임진왜란 때 무슨 이유로 고추를 갖고 들어 왔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답을 한다고 생각해낸 것이 우리나라 민족을 죽이려고 고추를 갖고 들어 왔다는 것이 소위 ‘고추독초설’이다.

인류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농산물이나 식품의 주요 재료로 쓰이는 생물(동식물)을 갖고 들어간 경우, 그 원료로 쓰이는 음식이 널리 애용되어야 하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재료로 쓰이는 식물을 사람이 갖고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백년전 우리 교포들이 미국에서 김치를 담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추씨를 미국에 갖고 들어간 것처럼, 불가피하게 일본군이 고추를 갖고 들고 올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에는 고추로 만든 음식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일본군이 왜 임진왜란 때 고추를 갖고 들어 왔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고추의 일본전래설을 주장하는 그들은 일본에서 고추를 갖고 들어와야 하는 당위성을 찾지 못하면 일본전래설이 흔들린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급기야 고추가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을 독살하려 들고 왔다는 고추독살(초)설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7].

3.2 고추독살(초)설의 허와 실

그러면 고추독살설은 사실일까? 고추독살설의 문헌적인 근거는 없다. 그들 주장처럼 어디의 문헌에도 일본군이 우리 민족을 독살하려고 무기로 고추를 갖고 들어왔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그들은 『지봉유설』(1614년, 이수광)[9]의 ‘남만초(변초)를 술에 타먹었다가 죽는 사람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을 주장하고 있다.[10] 이 기록도 일본군이 강제로 술에 타 먹여 우리 군인이나 백성을 죽였다는 기록은 아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나라 고추 아닌 남만초를 술에 타먹었다가 화를 당했다는 기록일 뿐이다. 일본군이 무기로 가져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무기로 활용하여 우리 민족을 독살하려는 것을 분명 보았을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백성들이 그것을 술에 타먹었다는 말인가? 정황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의 일본 무기를 살펴보자. 일본은 일찍이 서양에서 개발된 조총으로 무장하였으므로 그 전쟁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되는 싸움이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화살이나 대포밖에 없었는데 이에 비하여 일본은 조총으로 엄청난 파괴력과 적중률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무기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데 원시적인 고추를 우리민족을 독살하려고 갖고 들어올 필요성이 없다. 조총을 갖고 있는 군대가 화살보다도 위력이 떨어지고 칼보다도 근접 전투력이 떨어지는 고추를 그렇게 많이 갖고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고추 일본 전래설의 추종자인 모 교수는 고추의 일본 전래설을 들면서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때 우리가 아낙네들이 돌을 치마에 실어 날라 이를 던져 왜군을 물리쳤다는 구전에 한술 더 떠 ‘한쪽에는 돌을 실어 나르고 한손으로는 고춧가루를 실어 날라 전투를 도와 승리하였다’고 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그의 다른 저서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과학문헌에서 요구되는 참고문헌이나 근거는 대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들어 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를 이야기 한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권율장군의 행주 대첩 때 아낙네들이 돌과 고춧가루를 치마에 실어 날랐는지 돌만 실어 날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돌은 분명히 아낙네들이 행주산성에 실어 날라 권율장군에 승리에 기여하였다는 구전은 분명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한 것은 행주 대첩 때 아낙네들이 고춧가루를 실어 날랐다는 사실이 고추 일본전래설을 결코 뒷받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아낙네들이 고춧가루를 실어 날라서 이를 뿌려 왜군들을 물리쳤다면 고추가 임진왜란 훨씬 이전에 있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임진왜란은 1592년 음력 4월에 일어났고 행주대첩은 그 이듬해인 1593년 음력 2월에 일어났다. 음력 4월은 고추를 파종하기 이미 놓친 시기로 그 이듬 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심어 수확한 고추나 고춧가루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군이 갖고 있었던 고춧가루를 전부 노획하였다는 것인 데, 조총을 갖고 있는 일본군에서 고춧가루를 노획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고춧가루를 노획하려든다는 것도 전술적으로 가치 없는 일이다. 즉 행주대첩때 아낙네가 고춧가루를 다량 확보하여 왜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임진왜란 때 고추가 들어왔다는 주장을 포

기하지 않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아낙네가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발상은 이미 어머니들이 고춧가루를 음식에 친숙히 사용하지 않았으면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다. 누가 시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만큼 우리 아낙들은 고춧가루에 친숙해 있다는 증거이다. 즉 임진왜란 훨씬 전에 고추는 우리나라들이 음식에 많이 쓰는 재료였다는 증거이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민족이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우리나라 고추 (SHU 600정도) [11]는 우리 몸에 뿌려지면 눈물이 나게 하여 전투력이 떨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고추로 직접 죽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추의 독초설은 성립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고추독초설은 고추의 일본전래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근거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의 논리적 대우인 ‘고추의 임진왜란 때 일본전래설’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고추를 먹어서 죽었다는 기록은 고문헌 어디에도 없다. 또한 지금같이 고추로 김치나 고추장으로 만들어 먹어서 죽을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를 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민족 우수설’은 꺼내드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니까 독초를 김치나 고추장으로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다. 정말 해괴하고 비과학적이어서 황당할 따름이다.

진리는 단순한 것이다. 쉽게 설명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헌에 임진왜란 전에 고추장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고추, 김치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고추와 김치다. 그것을 굳이 고추와 김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열중하고 해괴한 잡설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학문이 아니다. 앞서 진리의 정의와 논법에서 본바와 같이 ‘고추독살설이 참이 아니면 반드시 고추의 일본전래설도 참이 아니다’. 나중에 다른 논문에서 언급될 예정이지만 다른 잡설도 마찬가지다[12]. 결론적으로 고추독살설은 고추의 일본전래설의 논리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4.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오류

4.1 잘못 알려진 남원산성 노랫말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식문화 또는 전통 문화이다. 식문화, 농경문화, 전통 문화는 항상 같이 생각되어 왔다. 따라서 ‘진실은 쉽게

설명되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다라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정의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정보비만 현상이 우리 문화의 스토리에서 발견된다. 본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해석에 있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의 문제점(오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중중모리 장단의 「남원산성」 민요를 1960-1970년대 김세레나 가수가 불렀다. 그 노래의 가사는 원래 다음과 같다.

- 1)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수진이 날지니
해동청 보라매 떴다 봐라 저 종달새/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능수버들가지 휘늘어질 때/피꼬리는
짹을 지어/이 산으로 가면 피꼬리 수리루/음음~ 어
허야~/에헤야 뒤여허~ 허둥가 허허 둥가 둥가 내 사
랑이로다
- 2) 남원산성 찾아가 후유 한숨 바라보니/수진이 날지
니 해동청 보라매/떴다 봐라 저 종달새/산전은 푸
르고 산새는 우니/일만 꽃들이 보기가 좋은데/빠꾸
기는 짹을 지어/이 산으로 가면 빠꾸기 수리루/음
음~ 어허야~/에헤야 뒤여허~ 허둥가 허허 둥가 둥
가 내 사랑이로다

그런데 이 노래에 대하여 최근에 몇몇 블로그에서 여
기서 남원산성은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의 오류라며 그럴
듯하게 설명하고 있다[13]. 핵심은 남원에는 남원산성이
없고 이화문은 서울에 있는 이씨 조선 왕의 궁궐문을 가
르킨다는 것이다. 사실이 쉽게 설명이 안되니까 또 다른
설을 만들어 설명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신고자 한다.

{..... 처음에는 노래 제목이 당연히 <남원산성>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김세레나 같은 유명한 민요 가수가 “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볼 때~”하고 불렀기 때문
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노래 제목이 <남한산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랫
말을 다시 한 번 훑어보니 과연 <남한산성>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한산성(南漢山城)과 남원산성(南原山城): 남원(南原)
에 남원산성(南原山城)이 있는지 찾아보자. 남원(南原)
에는 남원산성(南原山城)이라 이름 붙은 산성(山城)이

없다. 다만 교통산성(蛟龍山城)이 있을 뿐이다. 백제(百
濟) 시대 때 만든 교통산성(蛟龍山城)은 남원시 서북쪽
에 있는 돌 산성(山城)이다. 어떤 사람은 교통산성(蛟龍
山城)이 바로 남원산성(南原山城)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는 남원산성을 어떻게든 찾으려다 보니 나온 주장일 뿐
이다. 「남원산성」 민요 때문에 교통산성(蛟龍山城)이 남
원산성(南原山城)으로 둔갑(遁甲)하였다.

바로 여기 <이화문전>에 답이 있다. “이화(梨花)에 월
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라는 시(詩)
나 “이화여자대학교(梨花女子大學校)”에서 보듯이 <이
화>라고 하면 흔히 “배꽃(梨花)”을 떠올린다. 그러면 여
기에 나오는 <이화>도 “배꽃”일까? 조선(朝鮮) 왕족의
성씨가 이씨(李氏)인 데, “이화”는 “李花”가 아닐까?
<이화문전>은 <李花門前> 즉 궁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이화문전>이 <李花門前>이라면 “남한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대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뜻은 <남한산성>에 올라가 배꽃이
만발한 경치를 즐긴다는 뜻이지만, 그 속에 숨은 뜻은
<남한산성>에 올라가 <이화문전(李花門前)> 즉 궁궐
(宮闕)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조선 왕족의 성(姓)이
“오얏 리(李)”씨이기 때문이다.}

정말 소설과 같은 정보 왜곡이고 정보비만 현상이다.
결국 우리 음악의 왜곡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성씨 이(李)도 오얏이(梨)로 탈바꿈하여
승화되기까지도 하였다.

4.2 남원산성 노랫말 분석

이 주장(왜곡)이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인지 밝혀보고
자 한다. 첫째 이 노래는 중중모리 장단의 남도민요로 기
호민요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가사도 기호지방(현재
경기지방)과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남한산성과도 관계
가 없다. 둘째 남원에는 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산성이
있다. 다만 남원산성(南原山城)이라는 이름의 산성이 없
을 뿐이다. 남원이란 현재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백제시
대 훨씬 이후이기 때문에 백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城을
남원산성이라 불릴리가 없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면 된
다. 민요는 일반 백성이 부르는 노래이니 남원산성은 남
원에 있는 산성이다. 셋째 남한산성에서는 이화문은 안
보이지만 남원에는 이화문(理化門)이 있다[그림 1].

이화문은 남원에 흥익문과 같이 이씨조선을 일컫는 것

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철학과 실용주의 개념을 나타내는 문이다. 굳이 일반 백성들이 이씨 조선을 상징하는 문으로 이화문(李花門 또는 梨花門) 등 없는 문을 끌어다가 추상적으로 노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남한산성을 올라가도 어느 궁궐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짧게 설명이 되고 쉽게 이해되면 그것이 진실이다.



▶▶ 그림 1. 남원의 이화문(理化門)

또한 많은 블로그에서는 『남원산성』의 가사가 왜곡되어 있다. 가사 중 ‘해동청 보라매’가 많은 블로그[14]에 ‘해동 찬바람에’로 그리고 그럴 듯하게 ‘즉 해동(海東)은 바다 동쪽이니 우리나라를 가르키니 해동 찬바람에는 뜻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부는 찬바람이라고’이라고 해석까지 달아 놓는다.

옛날에는 매사냥이 많아 임금님도 매사냥에 많이 나갔다. 여기저기 문헌에 매봉우리(鷹峰山)이나 매봉에 임금이 사냥 나갔다는 기록이 많다. 여기서 수진이는 길들인 사냥매이고 날진이는 길들여지 않은 날매로 산진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예부터 우리나라 참매를 순 우리말로 보라매로 불렀고, 매(특히 송골매)를 칭하는 글자로 해동청(海東靑)으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해동 찬바람에’는 ‘해동청 보라매’를 무슨 뜻인지 몰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기록한 오류일 뿐이다. 옛날에는 어느 산이나 올라가면 수많은 새들과 다양각색의 매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어떤 이는 2절의 내용 중 ‘후유 한숨’도 남한산성에서 바라보면 한강이 보인다 하여 ‘후유 한수’로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다 잘못된 역사인식이나 무지에서 오는 오류이다.

이와 같이 『남원산성』 노래도 수많은 오류와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가 떠돌고 있다. 어느 한사람이 잘못 주장해버리면 그 뒤 수많은 사람은 그 한사람의 잘못된 주장을 고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어서 잘못된 정보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보 오류와 왜곡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5. 잘못된 정보가 나타나는 현상

앞에서 인터넷상의 잘못된 주장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얼마나 쉽게 전파되는지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언급하였다.

그 원인에 대하여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주장의 한 가운데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한글, 우리말 경시 풍조를 들 수 있다. 근대에만 하여도 우리의 문화나 역사를 연구하는 대부분 학자들이 한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한문을 잘 아는 학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중국에는 없는 말도 무리하게 한자를 끌어다가 어원을 따지고 어원을 만들려고 하였다. 우리글(訓民正音)이 없을 때에는 사물이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중국에 없는 말은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하였는데, 이때 한자 기록이 있는 경우 우리말의 어원이 무조건 한자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추의 어원이 고초(苦椒)에서 심지어는 일본어 고쇼(こしょう)에서 왔다고 주장하거나[2], 비빔밥의 어원을 골동반(骨董飯)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김치의 어원을 사람이름 김치(金致)나 침채(沈菜)에서 왔다는 주장, 배추나 무가 백채(百採)[15]와 무(蕪)에서 왔다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과, 더 나아가서는 양념은 약념(藥念)에서 소금은 우금(牛金)에서 왔다는 주장들이다.[5] 심지어 어떤 이는 우리말 돈이 칼도(刀)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무식한 백성들은 한자를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들어보지도 못하였지만 고추, 비빔밥, 김치, 배추, 무, 돈을 이야기하였지 어찌 그들이 한자 알기나 하였던가?[15] 그런데도 우리말의 어원을 한자에서 찾으려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일이다. 우리말 자체가 어원인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에 나오는 논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잘못된 어원이 판치는 또 다른 이유는 학문하는 사람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것을 한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배운 사람(지식인) 같고 한자를 모르고 한글(언문)만 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같이 여겼다. 그렇다보니 한자로 이야기하면 그럴듯해보니까 고유의 우리말로 한자어와 연관지어 이야기하면 유식한 것처럼 보이는 풍토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많이 생산되어 돌아다니는 것이다. 사물이나 우리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우리 민족의 혼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유식한

체하다보니 그런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때 우리말이나 지명을 강제로 한자어로 표기하면서 고유의 뜻과 의미가 변질되는 수많은 왜곡을 가져왔다.

세 번째로는 진리측면에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롭게 아전인수격으로 마구 갖다 붙이다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컨텐츠가 양산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식품에 매우 중요한 양념을 스토리를 만든다고 ‘건강하고 약이 되는 염원’을 갖는 뜻을 갖다 붙여 약념(藥念)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소금이 ‘소(牛)처럼 금(金)처럼 귀하다’하여 소금이라 했다는 것 등은 대표적인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5].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 하는 것은 대표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우를 범하기 가장 쉬운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무지하여 용감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앞으로 좀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남원산성」 노래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지한 오류가 이 노래에서 나타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6.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생긴 문제점

정보비만이 미치는 심각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로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둘째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진실된 정보가 흐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체 비만과 같이 우리 몸이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유지 시켜주는 물질의 흐름을 막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우리고유의 말을 왜곡시켜 급기야는 우리나라 김치가 백년밖에 안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며[17], 이성우와 같이 고추의 수많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는 고추의 어원인 胡椒가 늦게 보인다고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헛된 주장을 하여 우리나라 식품의 역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오류를 범한다.[6] 그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담긴 우리 전통 식품의 가치를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만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식품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데 커다란 저해를 초래한다.

7. 결론

무조건 우리말의 어원을 한자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잘못되었고 여기서 우리말의 왜곡과 많은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즘에 이러한 시도가 무슨 문제를 낳는 지 꼼꼼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는 수천만년의 역사를 가진 식품이 갑자기 몇 백년의 역사밖에 안되는 것으로 식품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의 오류가 판을 치면 판을 칠수록 진실이 묻히게 된다는 것이다. 하루 빨리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앞으로 하나하나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나 문화에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콘텐츠만이 가치가 될 것이며 앞으로 무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앞으로 잘못된 어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식품의 역사를 크게 훼손시키는 존재로 알려진 고추의 임진왜란설을 뒷받침하려 나온 각종설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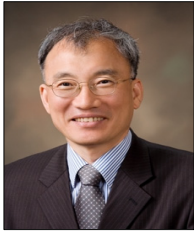
참고 문헌

- [1] 조정제, 임강현, 사람 비만세포주에서 사이토카인발현에 대한 다엽 주성분 Epigallocatechin-3-Gallate의 억제효과, 대한분초학회지, 16(2): 57-63, 2001
- [2] 栗田英二, 고추(red pepper)의 어원에 관한 연구, 『人文藝術論叢』, 대구대학교 인문과학 예술문화연구소, 253-269, 1999
- [3] 이효지, 12월의 절식, 새가정, 새가정사, 88, 1993
- [4] 이성우, 한국식품문화사, 교문사, 102-105, 1997
- [5] 차은정, 『양념의 건강기능성』, 『음식의 건강기능성과 맛』, 계명대학교힐링식품사업단, 2012, 29-46쪽.
- [6] 서요성, 과학적 가설에서 확실히 인정되기까지의 추이과정 해부, 브레히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 Zur Anatomie des Vorgangs bis zur Anerkennung der wissenschaftlichen Hypothese als Lehre, Bertolt Bertolt Brechts Leben des Galilei,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Bertolt Brecht und das moderne Theater 22, 9-35(27쪽), 2010
- [7] 배명희·이성우, 고추의 歷史와 品質評價에 관한 研究, 『韓國生活科學研究』, 1권 2호, 187-210, 1984
- [8] 이성우, 소문사설 항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9] 권대영, 정경란, 양혜정, 장대자, 고추이야기, 효일, 298, 2011
- [10] 이수광, 지봉유설(芝峯類說), 1614
- [11] SHU(Scoville heat unit)는 맵기를 나타낸 것으로 600이하 함은 물을 600배 희석시키면 매운맛이 사라진다는 것을 나타냄

- [12] 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277-278, 2006
- [13] http://blog.yahoo.com/_OFZU6EGBLRMPAH3U7O5
WWYAZGI/articles/19123
- [14] <http://gasazip.com/202876>
- [15] 우리말의 現住所(현주소) (53) 歸化語(귀화어), 1977.03.17
동아일보 4면 사회 기사(칼럼/논단)
- [16] 비빔밥과 골동반, 권대영,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본부,
2011.12.09 식품외식경제 제 720호
- [17] 주영하, 『주영하의 음식 100년-배추김치』, 2011.05.04, 경향
신문

저자 소개

● 권 대 영(Kwon Dae Young) 정회원



- 1986년 8월 : KAIST 생명과학과(이학박사)
- 1983년 2월 : KAIST 생명과학과(이학석사)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학사)
- 1986년 5월 ~ 현재 : 한국식품연구원 책임
연구원
- 1996년 ~ 2003년 : 숙명여자대학교 생명과
학과 겸임교수

- 2004년 ~ 현재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 대표교수
- 2011년 11월 ~ 현재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관심분야> : 식품생화학

● 양 혜 정(Hye Jeong Yang)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과학과(이
학석사)
- 1996년 1월 ~ 현재 : 한국식품연구원 선임
연구원

<관심분야> : 전통식품 콘텐츠개발, 식품기능성

● 정 경 란(Kyung Rhan Chung) 정회원



- 2011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
원 한국학과(문학박사)
- 1998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
원 한국학과(문학석사)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국악과(학사)
- 1988년 10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
임연구원

<관심분야> : 지역문화 및 전통식품 콘텐츠개발, 고려 및 조선시대
음악사

● 장 대 자(Dai-Ja Jang) 정회원



- 2004년 2월 : 건국대학교 응용생물화학과(이
학박사)
- 1986년 8월 : 건국대학교 농산물가공학과(농
학석사)
- 1989년 12월 ~ 현재 : 한국식품연구원 책임
연구원

<관심분야> : 전통식품 콘텐츠개발, 식품생물정보

본 연구는 농림수산물식품부 한식세계화 용역 연구 사업(한식 및 한
식원료의 건강기능, 문화, 지리적 우수성에 대한 총괄분석:
911010-02-1)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일부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